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진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 장성 공공실버주택, 친환경으로 짓는다

### 에너지효율·녹색건축 등 두루 고려해 설계... 예비인증도 획득 환자용 엘리베이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각종 편의시설 눈길

지난 3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진다.

장성군은 최근 현대식 공공실버주택(가칭 누리타운)이 정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 녹색건축 우량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 등급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예비인증은 정부 인증기관이 공사 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6개월간 심사해 인증하는 것이다. 본 인증은 준공 후 받을 예정이다.

장성군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등급은 단열 효과가 우수한 이중 창호와 LED 전등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장치를 설치하도록 설계해 획득했다. 1등급 인증을 획득했다는 건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라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주로 저소득 어르신인 입주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녹색건축물 인증은 고품질 건강을 고려해 토지 이용과 건축재료, 자원 등을 친환경 기준에 맞



춰 관리하고 에너지, 환경오염, 물순환관리, 실내환경 등을 고려해 건축물을 설계한 덕분에 획득할 수 있었다.

BF 인증은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동 및 접근할 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설계 시공한 건축물에 부여한다. 장성군은 공공실버주택이 고려령 주거시설인 점을 고려해 장애물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장성군은 주 진입로의 진출입 턱을 없애고, 응급상황 때 이용할 수 있는 환자용

엘리베이터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면기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현대식 공공실버주택은 국가가 내세운 미래형 노인복지주택 모델"이라면서 "장성에서 전국 최초로 공사를 시작하는 만큼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많은 부분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에너지효율, 친환경 녹색건축, BF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이 전국 공공실

버주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공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와 복지, 건강, 경제활동 관련 시설을 한 곳에 모은 현대식 복합 노인주거 아파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공모를 실시해 9개 자치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으며 광주·전남에선 장성군이 유일하게 뽑혔다.

건립 및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64억원으로 전액 국채다. 복거세대와 부부세대가 모두 거주할 수 있도록 25㎡(90세대)와 35㎡(60세대) 두 가지 형태로 짓는다. 1층에는 물리치료실, 헬스케어실, 취미실, 여가활동실, 부업실 등을 갖춘 실버복지관이 들어선다.

장성군은 공공실버주택에 들어서는 실버복지관 규모를 당초 700㎡에서 1,000㎡로 확장하기로 했다. 거주자뿐 아니라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내년 8월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 3개월 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국가유공자와 독거노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성=변정모 기자

## 제1차 구례발전 정책포럼 개최

### 군 정책자문위원회 워크숍 일한... 실현성 높은 발전방안 모색

구례군은 지난 21일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회의실에서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구례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개최한 구례발전 정책포럼은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공직자,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여 올해 처음 개최한 구례발전 정책포럼은 구례군 정책자문위원회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공직자,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여

이들은 구례군의 미래산업 전망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와 미실란 이동현 대표의 주제발표와 자문위원의 제안 의견 청취, 방청석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정석 교수와 이동현 대표의 주제발표는 구례군 공직자들의 의식 개선과 자문위원들의 의

견 개선에 촉매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는 "나는 뛰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도시의 발전" 등 도시재생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도시설계의 권위 있는 전문가이다. 이동현 대표는 식약청원(食藥可願)의 이름을 음식에 담기 위해 2005년 미실란을 설립한 이후 2011년 미국에 친환경 발아 현미를 처음 수출하는 등 우리 농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포럼의 가장 큰 결실은 무엇보다 구례발전의 마중물이 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있다. 구례군 생태문화관광 개발전략, 수경인삼 재배타운 조성, 힐링푸드 체험관광과 지역농업의 발전전략 등 자문위원들이 포럼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들은 각 부서에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청소년의 꿈을 담은 녹차체험' 큰 호응

### 보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음식 맛보기 4Go' 운영

보성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홍경욱)는 전남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 공모사업인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20만원으로 '지역음식 맛보기 만들Go, 먹Go, 즐기Go, 나누Go, 4G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유발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 8회 실시한다.

녹차에 대한 이론수업과 직접 녹차 잎 수확·가공·포장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발효차 만들기, 녹차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개발, 직접 만든 녹차를 아너바다 장터에 판매

등을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정성과 꿈을 담아 직접 만든 일명 '담은 녹차'를 7월 한달간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심과 도움을 준 관내 청소년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손편지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하였다.

홍경욱 센터장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며, 학교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영광군, 청년도전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영광군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의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청년도전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8월 11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총 4개 팀을

선발해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만 19~45세)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단체)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청년정책 연구,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아보는 로컬 프로젝트,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의 프로젝트 분야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신청서, 프로젝트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jny958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에게 자율적 참여기회를 제공

하고 청년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청춘플러스)를 참고하거나 총무과(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 함평군 강소농 전자상거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

### 경남 진주시 강소농 회원 40명 농업기술센터 방문



40명이 함평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다.

회원들은 이리네농장을 방문해 최정일 대표의 스토어팜 운영경험을 청취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부문 도시대표 수상자다.

특히 단호박, 백향과 등 틈새작목을 재배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주문

결제, 고객관리 등 스마트 농업에 앞장서고 있다.

회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주문, 온라인 결제, 고객관리 등 최 대표의 실례가 주의 깊게 귀 기울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운영상의 어려움과 성공증 등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으며 심도 있는 대화도 나왔다.

함평군이 벤치마킹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전남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3년 연속 도시 대표 표창을 수상하는 등 스

마트 농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정보화 능력 강화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항만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강소농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농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농가의 전자상거래 활용능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춘 정보화 강소농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평=김광훈 기자

##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